

issue comment

Analyst 박형우, 권민규 hyungwou@sks.co.kr / 3773-9035

SK증권 리서치센터

summary

- LG전자, 4분기 잠정실적 쇼크 기록
- 쇼크 배경은 1) 연말 계절적 비용 발생과 2) 자회사의 부진, 그리고 3) 수요 부진 지속
- 문제는 실적. 그러나 4분기 쇼크 (대규모 비용반영) 이후, 신년 1분기 실적과 주가가 좋았던 경험 다수

LG 전자 - 4분기 잠정실적 요약: 별도와 자회사에서 각각 500억씩 OP 쇼크

▶ 4Q24 영업이익, 컨센서스 하회

- 영업이익 1,461조원 기록 (컨센서스 4,000억원. 최근 기대치는 2,500억원이었음)
- 실적 쇼크 배경:

① 연말 재고 소진 위한 셀스루 프로모션 확대, ② 연말 계절적 비용, ③ 수요 부진 환경

▶ 부문별 실적 추정 및 주요 사항

- 연말 계절성 재고건전화 비용 증가

<부문별 영업이익>

- 가전 : -436억 (-1%, 이하 OPM) / 셀스루 프로모션 확대
- TV : 440억 (+1%) / 패널가 추이 불리. 상대적 선방
- 전자부품 : -33억 (-0.1%) / EV 중심의 수요 부진 지속
- B2B : -879억 (-7%) / IT (PC, 모니터) 수요 부진
- 기타 : -80억
- 연결자회사 2,450억원 (+4%) / 연말 계절적 비용 및 상반기 부진 대비한 선제적 비용 집행 추정

▶ 25년 1분기 변수

- 과거 연말 대규모 비용 반영 후, 신년 1분기 실적 서프 경험 다수
- (본사) 상고하자 계절성 반복. 실적 반등 전망
- (자회사) 북미 고객사 판매 감소 시즌 (계절적 비수기) 진입 영향 주목

▶ 애널리스트 의견

1) 문제는 실적

- 3개월 전 예상보다 부진했던 4분기 실적
- 비용/영업이익 평탄화 노력에도 4분기 대규모 비용 반영 반복
- 상고하저 계절성의 반복은 단~중기 주가 변동성의 가장 큰 변수로 작동
-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부담되는 내용

2) 수요 불확실성 지속

- LG전자만이 아닌 글로벌 전반 매크로 우려
- 중화권 경기 부양 (보조금 효과) 가 반등의 변수가 될 수 있음. 그러나 LG전자는 중국 노출도 미미
- 수요 반등의 가시성 여전히 낮음

3) 저점 매수에 대한 고민

- 4분기 실적은 저조했으나
- 4분기 쇼크 (대규모 비용반영) 이후, 신년 1분기 비용 감소에 따른 실적 급반등 전망
- 통상적으로 4분기 실적 쇼크는 저점 매수의 기회로 작용 (단/중기 주가 추이)
- 현재주가는 PBR 0.8배 수준

(억원)	4Q23			4Q24F (잠정실적)			
	매출액	OP	OPM	매출액	(YOY)	OP	OPM
H&A, 가전	66,822	-1,177	-1.8%	68,827	3.0%	-436	-0.6%
HE, TV	41,506	-701	-1.7%	43,996	6.0%	440	1.0%
VS	25,931	57	0.2%	26,709	3.0%	-33	-0.1%
BS	12,688	-895	-7.1%	12,561	-1.0%	-879	-7.0%
독립사업부 및 기타	10,107	967	9.6%	10,000	-1.1%	-80	-0.8%
LG이노텍 (추정치)	73,987	4,880	6.6%	65,682	-11.2%	2,450	3.7%
전사 (연결)	231,041	3,131	1.4%	227,775		1,461	0.6%
LG이노텍 제외	157,054	-1,750	-1.1%	162,093	3.2%	-989	-0.6%

Compliance Notice

작성자(관리자)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
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.

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
투자판단 3 단계(6개월기준) 15%이상 -> 매수 / -15%~15% -> 중립 / -15%미만 -> 매도